

## 초기 성인 마약 사용자의 마약 접근 및 남용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독립적 접근 사용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환<sup>1)</sup> 심 석<sup>2)</sup> 김주은<sup>3)</sup> 임한나<sup>4)</sup> 강찬휘<sup>5)</sup> 옥제남<sup>6)</sup> 신성만<sup>†</sup>

본 연구는 한국 초기 성인 마약 사용자의 마약 접근 및 남용 과정을 마약 접근 경로에 따라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독립적 접근 사용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마약 경험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표집하였고, 자료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범주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참여자의 체험 맥락과 의미를 반영하여 명명하였다. 분석 결과,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슬그머니 다가온 중독의 끈', '내 마음과 마약의 연결고리', '마약과 결속됨', '삶이 마약에 매여짐'의 총 5개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중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슬그머니 다가온 중독의 끈'은 두 유형 간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면, '내 마음과 마약의 연결고리', '마약과 결속됨', '삶이 마약에 매여짐'은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독립적 접근 사용자 간에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의 마약 사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 경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 및 치유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초기 성인, 마약 접근 유형, 관계적 접근, 독립적 접근, 반복적 비교 분석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A2A03088853)

- 1)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 2)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전문상담사
- 3)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4)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장사
-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함께한걸음센터 사회재활팀 사원
- 6)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교실 특임연구원

† 교신저자: 신성만,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E-mail: sshin@handong.edu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20~30대 초기 성인 마약 사용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2023). 대검찰청(2023)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20대 마약사범이 5,804명으로 전체의 31.6%, 30대 마약사범이 4,703명으로 전체의 25.6%로 나타나 20-30대 사범이 전체 사범의 절반 이상인 약 57.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마약 사용이 초기 성인기의 발달 특성과 맞물려 심리적·사회적 적응 과정의 한 양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한다(Arnett, 2000).

20~30대 초기 성인은 학업, 취업, 관계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정서적 취약성과 관계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이성택, 손영미, 2024). 이러한 복합적 삶의 맥락 속에서 마약 사용은 단지 쾌락이나 일탈의 결과로만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처한 심리·사회적 조건과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로, 맥락, 의미 구성 방식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Koob & Volkow, 2016).

초기 성인의 마약 사용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다양한 접촉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 마약 유통 및 사용은 주로 조직 범죄나 밀거래, 혹은 특정 지역 사회에서의 은밀한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박동균, 장철영, 2019). 그러나 최근 초기 성인의 마약 사용은 디지털 기반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며, 접근과 거래 역시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기반으로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신재우, 이완희, 2022). 이처럼 정보만 있으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마약 유통망과의 직접적인 관계 연결망 없이 개인적으로 마약을 탐색하고 접촉하는 초기 성인 사용자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마약에 처음 접촉하는 방식은 단순한 입문의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용 양상과 중독 경험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Ditton et al., 2013; Zinberg, 1984).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 내용을 참고하면 마약에 접근하게 되는 경로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하는 의미와 심리적 과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Stephenson 등(1995)은 다양한 중독 행동을 돌봄형(nurturance)과 쾌락형(hedonism)으로 구분하였다. 돌봄형 중독은 대인 관계나 사회적 활동에서 돌봄과 통제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쾌락형 중독은 즉각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Sutherland(1947)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 사회적 관계망이 약물 사용의 초기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와 유사하게 관계 기반 접근은 마약 사용을 또래 집단 소속감, 관계 유지, 정체성 확인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반면, Ditton 등(2013)은 우연한 노출을 통해 독립적으로 마약에 접근하는 사용자는 개인의 고통 회피나 충동적 쾌락 추구 등의 심리적 동기가 촉발 원인이 되거나, 비사회적이고 내면화된 중독 경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마약 접근 유형별 특징을 참고하여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가지는 특성과 맥락이 두 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지어짐을 확인하였고, 마약 접근

방식에 따라 이를 ‘관계적 접근’과 ‘독립적 접근’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마약 접근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마약 사용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약물사용 고위험군 선별척도(HIRIGADUST; 김진 등, 1998)나 청소년 약물사용 고위험군 선별척도(SPDA; 이기영 등, 2005)와 같은 기존의 척도들은 주로 개인을 둘러싼 가족, 친구, 학교 등의 관계적 환경과 사회적 자원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관계망과 무관하게 개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마약 정보를 탐색하고 접촉하는 독립적 접근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단순히 환경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내면 상태가 어떻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접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전통적 유형인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독립적 접근 사용자의 심리사회적 동기와 경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초기 성인 대상의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중독 이후 상태나 치료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접근 경로 자체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경험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독 이후의 삶, 재활 과정, 임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강선경 등, 2016; 강선경, 최미경, 2020; 강선경, 최윤, 2018; 김재환, 2019; 백형의, 한인영, 2014; 윤현준 등, 2021; 임혜영, 김학주, 2018; 임혜영 등, 2018; 장혜량 등, 2022;

차명희, 2022; 최미경, 2022a, 2022b; 한부식, 황인옥, 2017). 이로 인해 마약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사용 이전의 접촉 경로와 그 경험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해왔다. 더욱이 접촉 경로에 따라 사용자의 동기, 사용 양상, 심리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경험적으로 유형화하고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의 마약 접근 유형을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독립적 접근 사용자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마약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마약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단순한 중독 유무를 넘어, 개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마약에 접근하게 되었는지를 구조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참여자의 실제 경험에 기반해 마약 사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독립적 접근 사용자라는 접촉 유형 간 경험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범주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는 데 유용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활용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질적 자료 분석기법으로, 질적 자료를 조직화하고 유형화하는 데 적합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들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유기웅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마약 접근 유형별 분석의 체계성과 명확한 범주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범주의 비교와 분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별 참여자의 경험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나 정서적 맥락이 간과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에 대해, 참

여자의 체험 세계와 지각된 의미를 반영하는 현상학적 명명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경험의 깊이와 복잡성을 함께 포착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은 ‘어떻게 경험되는가(how it is lived)’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며, 이는 참여자의 체험 세계를 존중하고,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강점을 지닌다(Colaizzi, 1978; van Manen, 1990). 특히 각 범주가 참여자의 지각된 세계와 정서적 진술에 기반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의 언어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 사용에 이르게 되는 20~30대 초기 성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특히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마약에 접근한 집단인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개인적 탐색이나 디지털 경로를 통해 홀로 마약에 접근한 집단인 독립적 접근 사용자 간의 경험 구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마약 접촉 경로에 따라 사용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고 심화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참여자 간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각 범주는 참여자가 지각한 의미와 내면의 정서적 구조를 반영하여 현상학적 관점에서 명명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맥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 경로 유형별 맞춤형 예방 및 개입 전략의 단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성인의 마약 접근 경로에 따라 나타나는 경험의 구조적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마약 접근 유형에 따라 참여자들이 마약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가?

## 방 법

###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에서 35세 초기 성인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한국에서 마약류 사용이 불법이므로, 해당 경험이 있는 개인을 모집하는 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마약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활용하였다(Creswell & Poth, 2021). 이를 위해 마약류 환자 치료 시설 병원 2곳과 약물중독 치료자활공동체 1곳에 연구 협조 공문을 보내 담당 실무자를 소개받아 참여자 모집을 의뢰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초기 성인기(만 20~35세)로 한정하였다. 둘째, 마약류 남용 경험이 있으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약 기간이 짧거나 최근 재발한 경우 급단 증상으로 인해 인터뷰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무자와 논의 후 인터뷰가 가능한 상태로 권고된 자만 선정하였다. 셋째, 60~90 분간의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마약류 남용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인터뷰 진행이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유발하거나 마약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여 연구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9명의 참여자가 포함되었으며,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2세에서 32세 사이로, 마약류 사용을 시작한 연령은 평균 24.7세로 나타났다. 가장 이른 나이에 약물을 시작한 참여자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세)	마약 사용 시작 연령	접근 유형	초기 약물 접근 경로	첫 사용 약물 (투여 방식)	주 남용 약물
1	남	26	21	독립적	랜덤 채팅	자낙스 (비강 투여)	메틸페니데이트 (비강 투여)
2	남	22	21	독립적	SNS	필로폰	필로폰
3	남	29	23	관계적	지인의 권유	대마	필로폰, 대마
4	남	29	20	관계적	지인에게 요청	대마	메틸페니데이트 (비강 투여)
5	남	31	23	관계적	지인의 권유	대마	필로폰
6	남	26	19	관계적	클럽	엑스터시	필로폰(흡연)
7	여	32	31	독립적	SNS	필로폰	필로폰
8	여	26	22	관계적	클럽	케타민(흡연)	필로폰
9	여	28	26	독립적	SNS	필로폰	필로폰

는 19세였으며, 가장 늦은 경우는 31세였다. 초기 약물 사용 경로는 지인의 권유나 요청을 통해 시작한 경우(3명), 클럽(2명), SNS상에서 만난 딜러를 통한 경우(2명), 채팅 어플에서 만난 성 파트너를 통한 경우(1명), 유튜브를 통한 정보 습득(1명), 그리고 병원 처방(1명)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 사용 약물은 자낙스,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으로 다양하였으나, 참여자들의 주 남용 약물은 주로 필로폰(8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메틸페니데이트를 비강 투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관련 전문 서적을 참고하며, 인터뷰 질문지 작성, 면담 기법, 질적 자

료 분석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다. 또한, 여러 현상학적 질적 연구 논문을 숙지하면서 연구 주제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모색하고, 분석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자의 신중함과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대한 물음을 본질적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시작으로 보았고, 연구참여자가 마약에 최초로 접근하고 남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듣고 기술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충분히 자기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린 후 내용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마약을 남용하게 되었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2. 마약류를 사용하기 전 귀하의 삶은 어떠했나요? 3.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

입니까? 4. 마약류를 사용한 이유(동기)는 무엇 입니까?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만남 중에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연구참여자가 이러한 심리적 피로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음을 적시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필요시 휴식 시간 보장과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가 가장 편한 시간을 조율하여 병원 내 휴게실이나 면담실, 스터디 카페 회의실 등에서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심층 면접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팀 외에는 열람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노출될 수 있기에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전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참여 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의 위험과 불편사항, 연구 참여의 이익, 연구 참여 중단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 신분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손상 발생 시 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참가자별로 두 번씩 인터뷰를 진행하여 총 18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개방형 질문 후에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에서의 부족한 내용을 보

충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참여자에게 재확인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인터뷰 이후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대신 고유 번호로 연구참여자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기본 분석틀로 사용하되, 도출된 범주에 대해 참여자의 지각된 의미와 체험의 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관점에서 명명하고 의미화하는 절차를 병행하였다. 분석 과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및 비교 분석, 현상학적 명명 및 범주 확인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개방 코딩(open coding)은 수집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에 개념적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이는 연구자가 열린 태도로 자료를 탐색하며, 연구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이나 감정,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모든 경험 단위를 식별하는 과정이다(유기웅 등, 2012). 이때 코드의 생성은 선이론적(pre-theoretical)이 아닌 자료에 뿌리내린 경험적 진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범주화 및 비교 분석(analytic coding) 단계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해 생성된 다수의 개념을 유사성과 차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묶어, 상위의 하위 범주 및 상위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이때 각 개념은 참여자의 경험 안에서 맥락적으로 비교되며, 그 유사성과 변이를 기반으로 범주 구조가 재조정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핵심인 자료 간 반복 비교를 통한 범주 정교화 과정을 반영한다(유기웅 등, 2012).

셋째, 현상학적 명명 및 범주 확인 단계에서는 구조화된 범주가 단순한 개념적 분류에 그치지 않도록, 각 범주가 지닌 참여자의 체

험 의미와 존재론적 함의를 고려하여 명명하는 과정을 병행하였다. 즉, 각 범주는 단순한 현상 기술에 머물지 않고, 참여자가 인식한 체험의 정서적·심리적 구조를 포착할 수 있도록 의미 중심의 상징적 명명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최종 범주가 원자료의 본질적 흐름과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 코딩 이전의 원자료와 다시 대조하며 범주의 타당성, 포괄성, 중복 여부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Ezzy, 2002).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주는 참여자 진술의 의미 구조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또는 재명명되었으며, 이는 해석의 일관성과 현상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 결 과

본 연구는 한국의 초기 성인 마약류 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에 접근하게 되는 경로에 따라 경험의 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참여자 9인의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초기에는 53개의 의미 단위(코드)를 도출하였다. 이후 코드 간 유사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이를 30개의 개념으로 정리하였고, 다단계의 통합과 재범주화 과정을 거쳐 총 5개의 상위 범주로 범주화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5개의 상위 범주는 각각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슬그머니 다가온 중독의 끈', '내 마음과 마약의 연결고리', '마약과 결속됨', '삶이 마약에 매여짐'으로 명명

되었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마약을 접촉하기 전의 내면 상태에서부터, 마약 사용의 의미화, 결속 과정, 그리고 삶 전체에 미친 영향에 이르기까지의 경험 흐름을 반영한다.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마약에 접근하게 된 경로와 심리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마약 사용자 경험의 구조를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으며, 각 상위 범주 아래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독립적 접근 사용자가 어떻게 서로 다른 심리적 의미망 속에서 마약을 경험하고 해석했는지를 보여준다.

두 유형은 모두 정서적 방임, 고립된 성장 경험 등에서 기인한 심리적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취약성에 반응하고 마약과 관계 맺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관계적 접근 사용자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결핍을 보상받고자 하며, 독립적 접근 사용자는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불신하며 스스로 감정을 감내하는 방식으로 마약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이후 결과 분석의 기준이자, 마약 사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핵심 틀이 되었다.

###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범주는 참여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정서적 불안정성과 관계적 상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범주에서의 경험은 관계적 접근과 독립적 접근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생존의 장과 '홀로 서야 했던 아이'로 구성되었다.

우선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생존의 장'에

표 2. 마약류에 대한 접근 유형별 경험 비교

범주	유형	관계적 접근	독립적 접근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생존의 장	• 회피의 본보기, 쾌락의 답습	• 내 안에서 솟구치는 괴로움
	• 홀로 서야 했던 아이		
슬그머니 다가온 중독의 끈	• 동경하는 세상 속에 있는 마약	• 더 큰 쾌락으로의 마중물	• 그러나 향할 곳 없는 외딴 섬
	• 마약을 함께 하는 우리들의 문화		
내 마음과 마약의 연결고리	• 쾌락을 통한 세상과의 연결 욕구	• 새로운 내 모습에 도취됨	• 나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욕구
	• 마약 세상의 문을 두드림		
마약과 결속됨	• 마침내 내 것이 된 마약 세상	• 새로운 내 모습에 도취됨	• 생각보다 가까운 미지의 세계
	• 이제는 나를 정의하는 마약		
삶이 마약에 매여짐	• 내 손바닥 위일 뿐인 마약	• 한 줄기 빛을 향한 맹렬한 날개짓	• 타들어간 희망의 날개, 그리고 추락
	• 하나씩 열어보는 새로운 세상		
	• 이제는 나를 정의하는 마약		

대하여 대부분의 참여자는 가정이나 학교 등 일차적 사회화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했던 경험을 진술하였다. 참여자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피 튀기는 부부싸움’을 일상적으로 겪으며 정서적 위협감을 느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른 참여자는 왕따 경험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배척되기도 했고, 오히려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는 등의 공격성 보이기도 했음을 보고하였다.

참여자 4: 일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애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 시절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랑 도박 중독이 있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맨날 옷 빨개벗은 채로 맨날 피투성이 되도록 맞고 비 오는 날 빨개벗은 채로 내쫓고 엉망 맨날 죽이네 사네 막 이런 그런 부부

싸움 피튀기는 부부 싸움 밖에 못 보고 자라왔었죠.

참여자 8: 저도 이제 왕따 비스무리한 것도 당해본 것 같고, 그런 복수심 때문에 저도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본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늘 공격적으로 좀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상처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부모는 ‘집에 없기 일쑤’였고, ‘인장’이나 ‘칭찬’, ‘사랑’ 등을 준적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여자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거나 ‘인생은 혼자 개척해야만 한다.’와 같은 인지 도식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범주는 결과적으로 참여자가 이후의 삶에서 정서적 결핍, 불신, 자기방어적 생존 전략을 내면화하게 된 과정을 반영한다.

참여자 3: 엄마 아빠가 집에 자주 안 계셨거든요.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그래서 컵라면 같은 거 사먹고. 아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지? ...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지원도 해주시고, 심적으로도 많이 도움 주시는데, 왜 내 가족은 어째서 이렇게 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참여자 4: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한 번도 인정받거나 칭찬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 뭐 이제 사랑의 결핍. 사랑을 받고 싶는데 사랑을 나눠줄 줄도 모르잖아요. 사랑을 받고 자라 본 적이 없으니까.

참여자 8: 돈이 최고다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 어렸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배신도 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좀 혼자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 누구도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뭐 이런 좀 강한 이미지로 많이 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건데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산 것 같아요.

### 슬그머니 다가온 중독의 끈

슬그머니 다가온 중독의 끈 범주는 부모의 중독을 가까이서 접하는 과정에서 중독이라는 현상 자체에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회피

의 본보기, 쾌락의 답습’ 범주와 중독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마약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인 ‘더 큰 쾌락으로의 마중물’로 구성되었다. 이 두 범주는 관계적 접근과 독립적 접근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험에 해당한다.

‘회피의 본보기, 쾌락의 답습’은 발달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물질 및 행동에 중독되는 것을 문제에 대한 회피와 쾌락의 수단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참여자는 부모의 중독이 불화라는 문제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중독을 ‘문제를 형성함에도 계속 할 만큼 좋은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 5: 저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도박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좀 불화를 많이 봤고 싸우는 모습이나 ...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이셨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뭔가에 중독이 되면 이게 좀 좋겠구나, 나도.

참여자 7: 일단 아주 어렸을 애기,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 시절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랑 도박 중독이 있으셨거든요.

‘더 큰 쾌락으로의 마중물’은 발달 과정에서 술, 담배, 도박 등 중독 물질 및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약에 대한 마중물과 같은 경험으로, 특히 술은 미성년자에게 불법이지만 ‘어른들이 주는 거니까’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기 쉽다. 특히, 참여자는 일찍이 약물에 노출되는 경험을 함으로

써 '기분이 좋아지는구나'를 학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술은 '외로운 삶의 친구'가 되어 약물 사용을 통해 마음을 달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4: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기도 했고.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저를 항상 좀 데려가셔가지고 같이 술 자리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는 거니까 마셔도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먹고서, 아! 이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어.. 너무 외롭기도 하고 집에 밥 맨날 배달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시켜 먹고 ... 근데 이제 저한테 (마약 이전에) 처음에 찾아왔었던 그 알코올 ... 이 저한테는 친구였었던 거고..

### 내 마음과 마약의 연결고리

참여자는 발달과정에 해당하는 앞선 두 가지 범주에서는 공통 경험을 공유하였지만 마약과 본격적인 접점을 갖게 되는 내 마음과 마약의 연결고리 범주부터는 접촉 유형별 경험의 구조적 차이가 드러났다. 관계적 접근과 독립적 접근 사용자 각각의 경험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계적 접근

관계적 접근 사용자에게 마약과의 연결고리 범주는 '동경하는 세상 속에 있는 마약', '마

약을 함께 하는 우리들의 문화', '쾌락을 통한 세상과의 연결 욕구'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동경하는 세상 속에 있는 마약은 뮤직비디오, 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가 참여자에게 마약에 대한 동경심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약은 특정 장르의 음악이나 영화 속 인물이 가진 '쿨함', '남성성'과 연결되어 있었고, 참여자는 이를 모방하고 싶어 하였다.

참여자 5: 제가 흑인 음악을 좋아했어요. 힙합, 알앤비 이런 거. 작곡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쪽 문화를 보면은 그 뮤직비디오에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약을 하면서 춤추고 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접해왔는데, 그게 멋있었고. ... 영화에서도 약물 사용자가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거죠. 그냥 강패 영화 보면 멋있어서 막 강패 되고 싶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로서는 당연한 그런 거잖아요. 남성성에 대한. 그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100% 그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도 이거를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고 싶고, ...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약물을 하고 그런 좀 쿨한 모습이 있는 게 기본 자격 요건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마약을 함께 하는 우리들의 문화' 범주를 보면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이미지 차원을 넘어 마약을 동경하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처럼 받아들이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또한 마약은 참여자가 특정 집단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의 매개물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특히 대마초, 엑스터시, MDMA 등의 약물이 사교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집단적 분위기 속에서 허용되는 문화로 경험되었다고 진술했다.

참여자 6: 이제 클럽에서는 엑스터시라고 하죠 MDMA나 가벼운 파티 드럭 같은 거 상대방이 스킨십을 했을 때 이 사람이라 저랑 그냥 친해질 수 있는 ... 어릴 때 흔히 말하는 나는 그림이 좋아라고 해서 그림 열심히 그리다가 타투리스트가 됐잖아. 근데 그 타투를 하는 문화를 보면 약물을 하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해.

참여자 9: 하나의 문화 같은 거예요.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대마를 피면 엄청 웃기거든요. 그런 문화에 좀 심취되어 있었던 것 같고.

‘쾌락을 통한 세상과의 연결 욕구’는 이들의 마약 사용이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다 명확히 나타낸다. 참여자들은 연인 혹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외로움’, 내면의 ‘공허함’을 ‘덮고’ 마주하지 않기 위하여 쾌락을 추구했음을 회상하였다.

참여자 4: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나는 뭐 술 담배 안 하면 재미없는데 너, 재미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나이가 이제 20살 21살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참여자 8: 일단 외로운 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공허하다는 것도 컸었던 것 같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소금물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재미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이제 굉장히 외롭고 공허하니까 그걸 자꾸 덮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재미인 거고, 계속 쾌락 추구 형태로 살았던 거네.

### 독립적 접근

독립적 접근 사용자에게 마약과의 연결고리 범주는 ‘내 안에서 솟구치는 괴로움’, ‘그러나 향할 곳 없는 외딴 섬’, ‘나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욕구’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먼저 ‘내 안에서 솟구치는 괴로움’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독립적 접근 사용자들은 삶의 초기부터 겪어 온 불안정한 환경, 외상 경험, 관계 상실 등을 통해 심리적 결핍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으며, 그 결핍은 단순한 공허함을 넘어서 지속적인 ‘불안’, ‘좌절감’ 등 솟구치는 괴로움으로 경험되었다.

참여자 1: 항상 불안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불안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평화로운, 그, 그걸, 사람이 이걸 못 견뎌요 이거. 이렇게 싸악 돼 있는. 뭔가 다이내믹해야 되고 항상. 심장이 계속 쿵쿵거리야 되고.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가 오히려 저한테 되게 불안해요.

참여자 10: 남편이 집에서 애기 가졌는데 계속 담배 피우고 이제 술 먹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나도 술 좋아 그땐 술 좋아했으니까 나도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데 왜 나 혼자 힘들어야 되냐고 적어도 내 앞에서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그걸 크

게 싸움이 번졌는데 개가 제 배를 발로 찬 거예요. 엄청 그리고 때렸어요, 저를. 그리고 그냥 아기 이렇게 잘못되고 바로 이혼했는데. 그냥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 집이 또 이제 행복한 집안이 아니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꿈이 다시 생길게 가정을 가지고 싶다 해서 결혼을 한 건데 그렇게 3개월 만에 아기도 있는데 그렇게 좀 때리고 그런 거에서 너무 그냥 인생이 다 진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지만 독립적 접근 사용자들은 괴로움을 공감받을 대상이 없었고, 점차 참여자 3과 같이 집에만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가는데, 이러한 참여자의 경험을 '그러나 향할 곳 없는 외딴 섬'으로 명명하였다.

참여자 3: 이 세상은 그냥 나는, 완전히 그냥 어차피 나 혼자고 쳐내고 하니깐 다 가족은 연락되는 가족도 없고, 죽어도 안 될 이유가 없고, ...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집에만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깐, 대화도 잘 안 됐었고.

숫구치는 괴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삶에서 나 혼자라는 인식은 참여자에게 마약이 단순한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삶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 즉 '나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욕구'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죽음을 떠올릴 만큼의 극심한 내면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완화하고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선택지로 마약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었다.

참여자 10: 일주일 동안 진짜 누워만 있었는데 그때 자살 생각을 했고 그때 수면제를 이제 몇 100알을 모아서 먹고 근데 눈 뜨니까 또 응급실에 왔는데 뭐 칼 이런 거는 솔직히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았고 그때 한창 진짜 버닝썬 마약이 엄청 이슈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마약? 이게 뭔데 이라고 이렇게 구글에 쳐보고 하는 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찾았죠.

참여자 3: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죽는 거 무섭고 ... 차라리 약을 하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버리자.

### 마약과 결속됨

마약과 결속됨은 마약 사용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마약과 엮이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마약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접촉 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 관계적 접근

관계적 접근 사용자에게 있어 '마약과 결속됨' 범주는 '마약 세상의 문을 두드림', '마침내 내 내 것이 된 마약 세상', '새로운 내 모습에도 취됨'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먼저 '마약 세상의 문을 두드림'은 마약을 처음 접했을 때 즉각적인 쾌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통해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참여자는 마약의 쾌락에 한 번에 눈 뜨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

하였다. 분명 모두가 좋다고 하는 마약이지만 느낌이 오지 않아 수 차례 시도하는 노력 끝에 마약의 쾌감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 6: 네 너무너무 좋대요. 미친듯이 좋대요. 그냥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 번 해볼까. 얼마나 좋길래 그래서 했는데 느낌이 안오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10번째 10번째까지 시도해서 해보다가 진짜 10번째도 뭐가 안오면 나는 이제 안할 거다 했는데 10번째 되는 날 딱 귀랑 막 다 뚫리고

참여자 5: 그렇게 보면은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담배 필 때는 이제 내가 이거 왜 피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막 기침 하면 쪽팔릴 것 같고, 막 담배 피우다가 나도 이 맛을 느끼고 싶은데, 맛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니까. 피다가 나중에 내가 찾게 되는 거죠. ... 근데 담배 같은 거보다는 좀 빠르죠, 중독되는 기간이.

'마침내 내 것이 된 마약 세상' 범주에서 참여자는 마약의 쾌감에 눈을 뜨게 되며 자신의 쾌감 경험을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다. 참여자들은 마약 사용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유대감', '공감' 등의 '관계성의 결핍'을 채워주는 친밀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마약을 숨겨야 할 금기에서, 공유하고 드러낼수록 소속감이 깊어지는 수단으로 재인식하였다.

참여자 4: 사실 마약은 혼자 하면 안 잡혀요. 근데 혼자 하면 뭐냐 재미가 없거든

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는 ... 떨도 예를 들어서 대마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늘리고 즐기고 뭐 그냥 이런 그냥 술 취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만 있는데. 두 명이서 같이 있을 때 둘이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그게 웃겨서 또 그런 거기서 또 약이 주는 유대감 공감성. 왜냐하면 약쟁이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약하면서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 새끼는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로 어떤 의도로 하는지 알고, 막 그게 웃겨가지고 같이 깔깔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약쟁이들은 어떤 그런 관계성의 결핍이라든지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내 모습에 도취됨'에서 참여자들은 마약을 통해 일반인은 모르는 쾌감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월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게 되며, 마약 사용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5: 다 그런 거 어쩔하고 나도 약물 한다. 그런 거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 그리고 이제 내가 우월감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제가 아래로 본 거예요, 사람들을. 혼자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특별하다 생각하고.

### 독립적 접근

독립적 접근 사용자에게 ‘마약과 결속됨’ 범주는 ‘생각보다 가까운 미지의 세계’와 ‘멋진,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신세계’로 구분된다.

먼저, ‘생각보다 가까운 미지의 세계’는 독립적 접근 사용자에게 마약은 낯설고 모호한 미지의 세계였지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독립적 접근 사용자들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에 정보를 찾아보니 마약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접근이 쉬운 구조라는 점에 놀랐다고 하였다. 특히 인터넷,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 관련 콘텐츠를 접하며, 구입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간단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7: 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도 한번 파헤쳐볼까 한번 들어가볼까 해가지고 채널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딜러라는 애 한 명이 저한테 그냥 필로폰 한 번 주겠대요. 한번 사용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하게 됐어요. 기사 말고 영상 기자들이 들어가서 잠입해 있는 채팅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봐가지고 그거 보고 나도 신기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3: 그냥 트위터에 들어가서 그냥 궁금해하면서 마약 쳐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쳐봤는데 진짜 뜨더라고요. 금지어로 뜰 줄 알았는데. ... 제 생각엔 처음에는 별로 필로폰이라는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약물이었던 것 같거

든요. 근데 이게 대중 문화가 특히 트위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커져 있으니까, 그냥 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초딩들도 살 수 있을 거예요. ... 그만큼 사기가 쉽다.

이처럼 참여자가 가지게 된 호기심이 실제 마약 세계의 문을 넘기까지 어떤 물리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실제로 마약을 복용하게 된 참여자들은 튀어오를 듯한 쾌감과 우울증, 나쁜 기억들, 트라우마 등이 전부 사라지는 편안함을 경험하였다. 이 경험은 단지 좋다는 차원을 넘어, 참여자 스스로 ‘무조건 중독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야 만들 정도로 강력했다. 참여자들에게 마약은 ‘멋진,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신세계’였다.

참여자 3: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필로폰을 한 칸을 맞았을 때요, 어떤 기분이었나면은, 딱 봤는데, 와, 진짜 이건 최고다. 우울증이, 그냥 기분 나쁜 기억들, 트라우마들, 모든 게 사라지고, 그냥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들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미치, 미치겠는 정도로. 그냥 제자리에서 뛰어다니고 싶고 소리지르고 펄쩍 몸을 뭏 가누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그때 기분을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걸 기억하는 갈망이 오기도 있는데, 그때 진짜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로,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다 사라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1: 그 첫 입 빨자마자 오히려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와 이런, 미쳤다, 이거는 무조건 중독된다. 그, 그 때 이제 바로 이제, 좋으면서. 아, 이거 끝났구나. 나는 이거 무조건 중독됐다. 근데 그때는 부작용이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뭔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좇됐다. 약간, 속된 말로 좇됐다. 개쩌는데 이거 큰 일 났다 싶은.

### 삶이 마약에 매여짐

삶이 마약에 매여짐은 마약을 남용하기 시작하며 헤어날 수 없는 중독과 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접촉 유형별 참여자가 마약 중독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관계적 접근

관계적 접근 사용자에게 삶이 마약에 매여짐 범주는 '내 손바닥 위일 뿐인 마약', '하나씩 열어보는 새로운 세상', '이제는 나를 정의하는 마약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내 손바닥 위일 뿐인 마약'은 관계적 접근 사용자에게 있어 마약이 초기에는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즐거움의 수단이었음을 의미한다. 관계적 접근 사용자는 소위 '소프트 드럭(soft drug)'이라 불리는 대마나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사교적 맥락 속에서 사용하며, 자신이 얼마든지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여겼다.

참여자 9: 처음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좋긴 하지만 내가 끊을 수 있을 정도겠다.

참여자 8: 저도 추후에 한참 지나서 아 그 형들이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가 이제 이해됐었던 거지. 막상 시작할 때는 위험한 건가? 처음에 조절도 됐어요.

하지만 '하나씩 열어보는 새로운 마약 세상'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LSD, 코카인, 필로폰 등 점점 더 새롭고 강한 약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참여자 4: 그때 오랜만에 켜던 대마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다른 약물까지 이제 손을 대면서 일상에 스며들게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엑스터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에프터 파티로 대마 파티를 가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조합이 된 거예요. ... 코카인 배우게 되고 LSD 배우게 되고 필로폰 배우게 된 건데 ...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러다가 이제 더 강하게 된 거를 찾게 되는 거죠.

또한, 마약이 점차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마약 없이는 성관계나 음악 활동 등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의존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참여자 8: 파블로프의 개처럼 여자 생각 하면은 마약 생각나고, 마약 생각하면 여자 생각나듯이 그렇게 이제 변화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파블로프의 개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못 끊는 거거든요. ... 저는 4년 만난 여자친구랑 쪽 같이 약을 하면서 만났었던 거거든요. 그

렇게 이제 “한 번 하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놀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 뭐 이런. 그게 좀 성관계 쪽으로 많이 연관돼 있는 게 많고 ...

참여자 5: 무섭죠. (음악을) 못 만들면 어찌지. 그러니까, 이 루틴이 한 5년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무조건 약을 빨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켜져 있고, 녹음하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없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했는데 실패하면 너무 진짜, 제 자신이 충격 먹을 것 같아가지고, 허탈할 것 같아요. 아 그냥 핑계였나 (목소리가 작아지며) 음악하는 게

특히 자신이 좋아하던 음악을 마약 없이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자 음악이 마약을 하기 위한 핑계였나 하는 의심이 들며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 등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마약이 삶의 다른 영역에 결합되어 필수 요소가 되는 양상을 ‘이제는 나를 정의하는 마약으로 명명하였다.

### 독립적 접근

독립적 접근 사용자에게 삶이 마약에 매여 짐 범주는 ‘한 줄기 빛을 향한 맹렬한 날개짓’, ‘타들어간 희망의 날개, 그리고 추락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독립적 접근 사용자들은 마약 사용 초기부터 삶 전체가 마약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한 줄기 빛을 향한 맹렬한 날개짓’은 마약이 삶의 고통을 가려주는 유일한 감각적 해방구로 인식되며, 그 쾌락에

빠르게 몰입하고 자신을 투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때 마약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게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절박한 희망의 통로로 인식되었다.

참여자 3: 완전히 한번 딱 맞으니까 이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거라면 내 목숨, 이거를 계속 맞을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겠다. 내 목숨과 바꾸고 싶어. 차라리 약을 하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버리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돈도 다 날리고 마약 사는 데, 빚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필로폰 사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참여자 1: 네, 그냥, 나를 놓는 거죠 사실. 그니까 자살할 생각도 없는데, 그게 사실 자살인데 사실, 놓는 거죠 그냥, 다 필요없고 그냥, 당장만 이거, 이거 쓰면 되니까. 그 고통을 또 마주하기 싫은 거죠. 이거 안 좋고 이거 내 진짜 치명적인데, 그 고통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참여자 2는 마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의 자살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과 금단 현상의 고통을 마주하기 싫은 마음에 마약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쾌락을 강하게 좇을수록 약물에 대한 내성도 강해진 참여자들은 반대급부의 고통을 마주하며 추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타들어간 희망의 날개, 그리고 추락으로 명명하였다.

참여자 1: 아빠가 눈물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눈을 크게 뜨며) 그때는 솔직히 아무 감정 안 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 약이. 무감각해지게 모든 거를. 이게 진짜 마취, 마취, 마취되는, 말 그대로 마취 진통제니까. 감정적으로, 사람이, 넘브(numb)해져요 그냥. 그냥 무뎌져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정도예요. 오로지 마약. 다 의미없다.

참여자 3: 공황장애가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전에 꼭 일어나가지고 제가 밤 1시에 잠자리 누운다 치잖아요. 그러면 새벽 2시인가 3시에 다시 깨요. 그러면 또 자다가 한 두 시간 뒤에 또 깨요. 뭔가 뇌가 망가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듯이 머리가 아팠어요.

참여자들은 점차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거나, 편집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마약 사용자가 마약에 접촉하게 되는 경로에 따라 그 사용 경험과 의미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약 사용 경험이 있는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고,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독립적 접근 사용자라는 두 가지 사용 유형이 도출되었고, 총 5개의 범주와

20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관계적 접근 사용자와 독립적 접근 사용자는 마약 접근 동기, 주요 심리 기제, 관계 인식, 중독 경로 등의 요소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본 논의는 이러한 발견을 중심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체화하고, 선행연구와의 비교 속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를 제시하며,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마약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관계적 접근과 독립적 접근의 두 가지 유형을 구조화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경로 중심의 유형화는 Sutherland(1947), Zinberg(1984), Ditton 등(2013)을 비롯한 국외 일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이나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조명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마약 접근 경로 자체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유형화 시도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 그 차별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 특성,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을 뿐, 약물 사용자의 실제 접근 경로나 경험 구조를 중점적으로 유형화하거나, 관계적·독립적 경로별 심층적 동기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정보 환경과 마약류 접근 방식의 다변화 추세 속에서, 국내 20~30대 초기 성인 집단의 실질적 경험을 토대로 접근 유형의 개념화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단순한 개인차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 내면의 정서 처리 방식, 자아 정체감 형성 양상 등이 어떻게 얽히며 사용 경험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통찰을 제공한다. 관계적 접근이 마약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속감, 인정,

유대감을 경험한 반면, 독립적 접근은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불신하거나 회피하며 마약을 감정의 차단 도구 혹은 자기해소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Zinberg(1984)의 세 가지 요인 모델(drug, set, setting)에서 'set'(사용자의 심리적 상태)과 'setting'(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약물 사용 경험이 구성된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관계적 접근은 사회적 sett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약물을 매개로 관계를 재구성한 유형인 반면, 독립적 접근은 setting의 결핍 속에서 개인적 set에 의해 약물 사용이 주도된 구조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관계적 접근과 독립적 접근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외상 경험 및 중독 물질에 대한 노출 경험이 마약에 대한 취약성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범주는 참여자들이 마약에 접촉하기 훨씬 이전부터 누구에게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었던 정서적 결핍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이후 마약 사용의 기저에 깔린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정서적 방임이 심리적 무효화 경험을 초래하며, 회피적 정서 조절 전략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Shipman et al., 2000; Kim & Cicchetti, 2010). 방임적 양육은 단순히 보호의 결여가 아니라, 자녀가 감정적 고통에 처했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내적 스크립트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는 회피적 감정 조절과 자기 파괴적 충동 조절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 행동으로의 경로를 여는 심리적 기반이 된다(Wills et al., 2002).

이러한 발견은 단순히 마약 사용을 자발적 이탈이나 단일 원인으로 보는 접근의 한계를

넘어, 그 이전 발달 환경에서 형성된 정서적 상처와 애착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Cihan et al., 2014), 이와 관련해 성장기의 부정적 정서 경험과 마약 사용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김진숙, 2020; 유숙경, 이삼영, 2023; 최미경, 2023). 약물 사용자가 외상 경험과 약물 사용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권혜진, 2019),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 정서적 방임과 사회적 배제 경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적 지지와 회복 중심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마약 사용 예방에 핵심이 될 수 있다. 특히,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 범주에서 마약 사용자의 회피적 정서 조절과 자기 파괴적 충동 조절 실패가 중독 행동으로 이어지는 맥락은 정서조절 실패라는 큰 맥락과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은 물질남용을 비롯하여 불안, 우울, 자해행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장애 및 정신병리의 발생과 유지,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조용래, 2007). 조용래(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조절곤란은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의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마약 사용자에게 이러한 요인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은 '마음 속에 매듭이 꼬임'이라는 과정을 보고한 참여자와 중독의 과정을 공유하는 마약 사용자들의 정서적 결핍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취약성 요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마약 접근 유형별로 마약 남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기제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관계적 접근 사용자에게 마약은 '타자와의 관계' 또는 '사회적

집단과 연결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친밀감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클럽이나 파티,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약을 ‘공유하는 문화’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임한나와 신성만(202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맥락이 확인된 바 있다. “혼자 하면 뭐냐, 재미가 없거든요. ... 그게 약이 주는 유대감, 공감성.” (참여자 4) 이러한 현상은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핵심 개념인 모방과 강화의 과정과 맞닿아 있다. 참여자는 특정 문화나 집단 안에서 마약을 ‘즐거운 것’, ‘멋진 것’,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범을 관찰하고, 이들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점점 더 자신이 그 문화의 일원이 되어간다고 느낀다. 이러한 문화적 내면화 과정은 마약을 관계의 연결선 이상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일부로 만들게 된다.

반면 독립적 접근 사용자에게 마약은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하는 내면적 갈망의 발로로 나타났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삶’ 속에서 극단적인 고통, 자살 충동, 정서적 공허감을 경험했고, 마약은 이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내적 탈출구로 사용되었다. “그냥 이 세상은 나 혼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당장만 이거 쓰면 되니까.” (참여자 1) 이러한 독립적 접근 사용자의 경험은 회피적 대처 전략(avoidant coping strategy)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유숙경, 이삼영(2023)의 연구에서도 마약류 사용자가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여 감정을 무디게 하고,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며 자신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은 고통을 직접적으로 치

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 고통을 우회하게 만드는 도구였다. 특히 ‘마약과의 연결고리’ 범주의 내용은 관계적 접근 사용자도 공허감이나 외로움을 마약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마약이 단순히 쾌락 추구가 아니라 감정 조절 및 자기 위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관계적 접근은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을, 독립적 접근은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욕망하며 마약에 다가갔다.

따라서 ‘마약과의 연결고리’ 범주는 마약 사용에 담긴 개인의 정서적 서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독 개입에 필수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Deriu et al., 2024). 즉 치료 제공자가 단순히 약물 사용의 행태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심리적 동기와 기능을 파악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관계적 접근 유형의 마약 사용자에게 대한 치료 개입에서는 마약을 통해 만족하려 했던 소속 욕구를 다른 건강한 관계 방식으로 대체 충족하는 방법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류창현, 2024).

넷째, 본 연구는 관계적 접근과 독립적 접근 유형에 대한 치유 서비스 구상 시 상이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관계적 접근 유형의 마약 남용 과정은 점진적, 관계중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결합된 특성을 띠며, 그로 인해 이들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기관에 방문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관계적 접근 사용자는 초기에는 마약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기호이자 소속감의 매개로 인식하며(Moshier et al., 2012), 사용의 통제 가능성을 강하게 믿는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문제의식 형성과 중독 인지에 장

애가 되어 실질적인 개입 시기를 놓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전통적인 금단 증상 중심의 중독 선별 체계만으로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관계적 접근 사용자에게는 약물 사용 자체보다도 마약이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자기표현과 어떤 방식으로 엮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정성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천적으로는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학 현장 및 청년 밀집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기관에서의 조기 선별과 개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상담센터, 보건센터, 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을 통한 비정형적 접촉 지점에서, 자기 인식 이전 단계에서의 위험 신호(예: 약물과 소속 욕구의 결합, 과도한 쾌락 추구 행동 등)를 포착할 수 있는 선별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조기개입 시에는 단순한 약물 정보 제공이 아니라,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이나 회복자 멘토링 기반 지원 모델과 같이, 저항을 낮추고 자기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결국 관계적 접근 사용자의 중독 경로는 단지 약물 사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정체성에 스며드는 중독의 문화적 구조에 대한 민감한 이해를 요구하며, 이에 기반한 대학-지역사회 연계형 예방 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

독립적 접근 사용자는 마약 사용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약리적 효과에 압도되어 빠르게 중독에 이르는 양상을 보여 이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단기간에 경험할 위험이 높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며 마약에 접근하고, 첫 사용 시점부터 극단적 쾌락과 심리적 해방감을 경험함으로써 곧바로 약물에 집착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반복적인 자살 시도, 극단적 무기력, 대인관계 단절 등 중대한 위기를 동반하며, 응급 개입이 가능한 치료 환경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실제 본 연구의 독립적 접근 사용자들은 자살 미수 후 마약을 찾거나, 병리적인 불안과 공황 증상을 동반한 상태에서 약물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이는 단기적 위기 개입과 의료적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입원치료시설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중장기 재활과 회복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마약중독 치료재활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n.d.), 이는 입원과 외래 치료, 중독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적 접근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국가 기반 치료 인프라를 적극 연계·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약물 해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정서조절 역량 강화와 치료공동체 기반 회복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독립적 접근 사용자에게는 감정표현 훈련, 자기인식 강화, 대인관계 회복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중독 치료와 병행하여 트라우마 치료나 인지행동치료(CB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와 같은 통합적 심리치료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공감적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회복 공동체 내에서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것도 장기 회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성인 마약 사용자의 마약 사용에 이르는 과정의 경험 구조와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초기 성인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한 학문적 이해를 촉진하고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마약에 접촉하게 된 경로를 기준으로 관계적 접근과 독립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집단이 마약 사용에 이르게 된 맥락과 의미 구성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 및 치료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마약 중독 예방 정책 및 실천 현장에서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개입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 위험군 선별 방식이 아닌,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 세계 안에서 마약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고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가 특정 기관에 소속된 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직 치료나 상담으로 연결되지 않은 초기 사용자 또는 은둔형 사용자 집단의 경험이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용자 군의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확장된 표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약에 접근하기 이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인지적, 환경적 차별점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접근 경로에 따른 사용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지만, 현실에서는 관계적 접근 유형과 독립적 접근 유

형이 중첩되거나 경계가 흐린 혼합형 사용자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약에 대한 초기 접근 유형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마약 사용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관계형 접근 사용자가 독립형 접근 사용자의 특성을 보이는 등의 유형 간 변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접근 유형 정의를 참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한 뒤 각 유형의 특성이 혼합되거나,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주로 과거 경험을 회고하는 방식의 서술에 기반하고 있어 참여자들의 기억 왜곡 가능성이나 자기합리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향후에는 현행 사용자 대상의 참여 관찰, 일기 분석,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종단적 질적 연구(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 경험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내에서 초기 성인기 마약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질적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시도한 마약 사용자 개인 내적인 경험의 심층적 탐색은 후속 연구 및 실제적인 치료, 개입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선경, 문진영, 양동현 (2016). 마약중독에서 탈출한 회복자들의 자기 삶 재건에 대한 연구-질적 사례연구접근. *재활복지*, 20(1), 87-111.

- 강선경, 최미경 (2020). 남성 마약중독자의 회복활동가로의 생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2), 231-258.
- 강선경, 최윤 (2018). 약물중독자의 회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1), 191-211.
- 권혜진 (2019). 외상경험과 약물사용의 관계: 사회적 회복자본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환 (2019). 메스암페타민 중독 남성의 회복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1), 43-81.
- 김진, 김경빈, 전현민 (1998). 약물사용 고위험군 선별척도의 표준화 연구 (II). *중독정신의학*, 2(1), 67-75.
- 김진숙 (2020). 여성마약중독자의 회복과 재발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4), 673-685.
-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서울: 대검찰청.
- 류창현 (2024). 마약중독의 통합적 치료개입의 함의. *한국중독범죄학회*, 14(1), 27-65.
- 박동균, 장철영 (2019).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6(3), 67-94.
- 백형의, 한인영 (2014).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경험: 세상에서의 되살아 경험.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2(3), 151-177.
- 보건복지부. (n.d.).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2024년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bid=0020&act=view&list\\_no=1479721&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bid=0020&act=view&list_no=1479721&tag=&nPage=1) (2025년 8월 4일 접속)
- 신재우, 이완희 (2022).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특징과 마약밀수 현황. *한국범죄심리연구*, 18(4), 83-102.
- 유기웅, 이희경, 정혜영. (2012). *질적 자료 분석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유숙경, 이삼영 (2023). 남성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으로 인한 중독과 회복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교정연구*, 33(2), 57-96.
- 윤현준, 임혜영, 이남경 (2021). 여성 마약중독자의 회복 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5(1), 99-131.
- 이기영, 김영미, 임혁, 박미진, 박선희 (2005). 청소년 약물사용 잠재군 선별척도 (SPDA) 활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305-335.
- 이성택, 손영미 (2024). 내면화된 수치심이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4), 593-611.
- 임한나, 신성만 (2025). 한국의 20-30대 마약사용자의 썬섹스(Chemsex)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1(2), 209-244.
- 임혜영, 김학주 (2018).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영성 체험에 관한 연구: 기독교·가톨릭인 회복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1), 98-112.
- 임혜영, 김학주, 윤현준 (2018).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직업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8, 207-265.
- 장혜량, 서경선, 김나미 (2022). 마약중독회복요인에 대한 초이론적 모델의 유형 고찰: 국내 질적 연구의 내용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3), 425-440.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 차명희 (2022).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자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정담론*, 16(1), 63-93.
- 최미경 (2022a). 단약중인 마약중독자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정담론*, 16(3), 1-31.
- 최미경 (2022b). 치료공동체 (DARC) 에 입소한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0(2), 170-198.
- 최미경 (2023). 청년 마약중독자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5(3), 369-396.
- 한부식, 황인옥 (2017). 약물중독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부산지역 NA 모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1), 91-116.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ihan, A., Winstead, D. A., Laulis, J., & Feit, M. D. (2014). Attachment theory and substance abuse: Etiological link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4(5), 531-537.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 Poth, C. N. (202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4판)*.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는 2016년에 출간).
- Deriu, V., Altavilla, D., Adornetti, I., Chiera, A., & Ferretti, F. (2024). Narrative identity in addictive disorders: A conceptual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15, 1409217.
- Ditton, J., Hammersley, R., & Khan, F. (2013). *Ecstasy and the rise of the chemical generation*. Routledge.
- Ezzy, D. (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Allen & Unwin.
- Kim, J., & Cicchetti, D. (2010).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6), 706-716.
- Koob, G. F., & Volkow, N. D. (2016). Neurobiology of addiction: A neurocircuitry analysis. *The Lancet Psychiatry*, 3(8), 760-773.
- Moshier, S. J., McHugh, R. K., Calkins, A. W., Hearon, B. A., Rosellini, A. J., Weitzman, M. L., & Otto, M. W. (2012). The role of perceived belongingness to a drug subculture among opioid-dependent pati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6(4), 812-820.
- Shipman, K., Zeman, J., Penza, S., & Champion, K. (2000). Emotion management skills in sexually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girls: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47-62.
- Stephenson, G. M., Maggi, P., Lefever, R. M. H., & Morojele, N. K. (1995). Excessive

- behaviors: An archival study of behavioral tendencies reported by 471 patients admitted to an addiction treatment centre. *Addiction Research*, 3, 245-265.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ills, T. A., Sandy, J. M., & Yaeger, A. M. (2002). Stress and smoking in adolescence: a test of directional hypotheses. *Health Psychology*, 21(2), 122-130.
- Zinberg, N. E. (1984). *Drug, set, and setting: The basis for controlled intoxicant use*. Yale University Press.
- 논문 투고일 : 2025. 05. 30  
1 차 심사일 : 2025. 07. 29  
게재 확정일 : 2025. 08. 14

## A Qualitative Study on Drug Access and Abuse Processes among Emerging Adult Drug Us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ionally Initiated and Independently Initiated Users

Jaehwan Kim<sup>1)</sup>    Seok Sim<sup>2)</sup>    Jueun Kim<sup>3)</sup>  
Hanna Lim<sup>4)</sup>    Chanhwi Kang<sup>5)</sup>    Jenam Ok<sup>4)</sup>    Sung-Man Shin<sup>6)</sup>

<sup>1)</sup>Baekseok University    <sup>2)</sup>Gyeongbuk Problem Gambling Center    <sup>3)</sup>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p>4)</sup>Ajou University    <sup>5)</sup>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Ulsan    <sup>6)</sup>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drug access and abuse processes of emerging adult drug users by categorizing them into two types based on their access pathways: relationally initiated users and independently initiated users.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reputational case selection to ensure alignment with the research objectiv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involving open coding, categorization, and category verification. The derived categories were named based on the context and meaning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 in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analysis yielded a total of five major categories: "Ties entangled within the heart," "The subtle grip of addiction drawing near," "The bond linking my heart to drugs," "Bound together with drugs," and "Life shackled by drugs." Among these, "Ties entangled within the heart" and "The subtle grip of addiction drawing near" commonly appeared in both types, while the other three major categories showed structur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were repeatedly observed between relationally initiated users and independently initiated users. These findings provide a structured understanding of emerging adults' drug use experiences and suggest the need for tailor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based on access pathways.

*Key words* : Emerging adults, ddrug access pathway types, relational initiation, independent initiation, constant comparison method